



'자치경찰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경북형 자치경찰제 발전 방향 모색”

포항서 자치경찰위원회 워크숍 김순은 前자치분권위원장 특강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과 경북경찰청 소관부서 경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경북형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을 초빙해 '자치경찰제 출범의 의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이날 워크숍 강연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자치경찰

제 이원화의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경북형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자치경찰제 도입 이유,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법안 주요내용, 앞으로 발전과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손순혁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이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homigod@hidomin.com